

힘든 과정을 거치고 거쳐 3일만에 도착한 아이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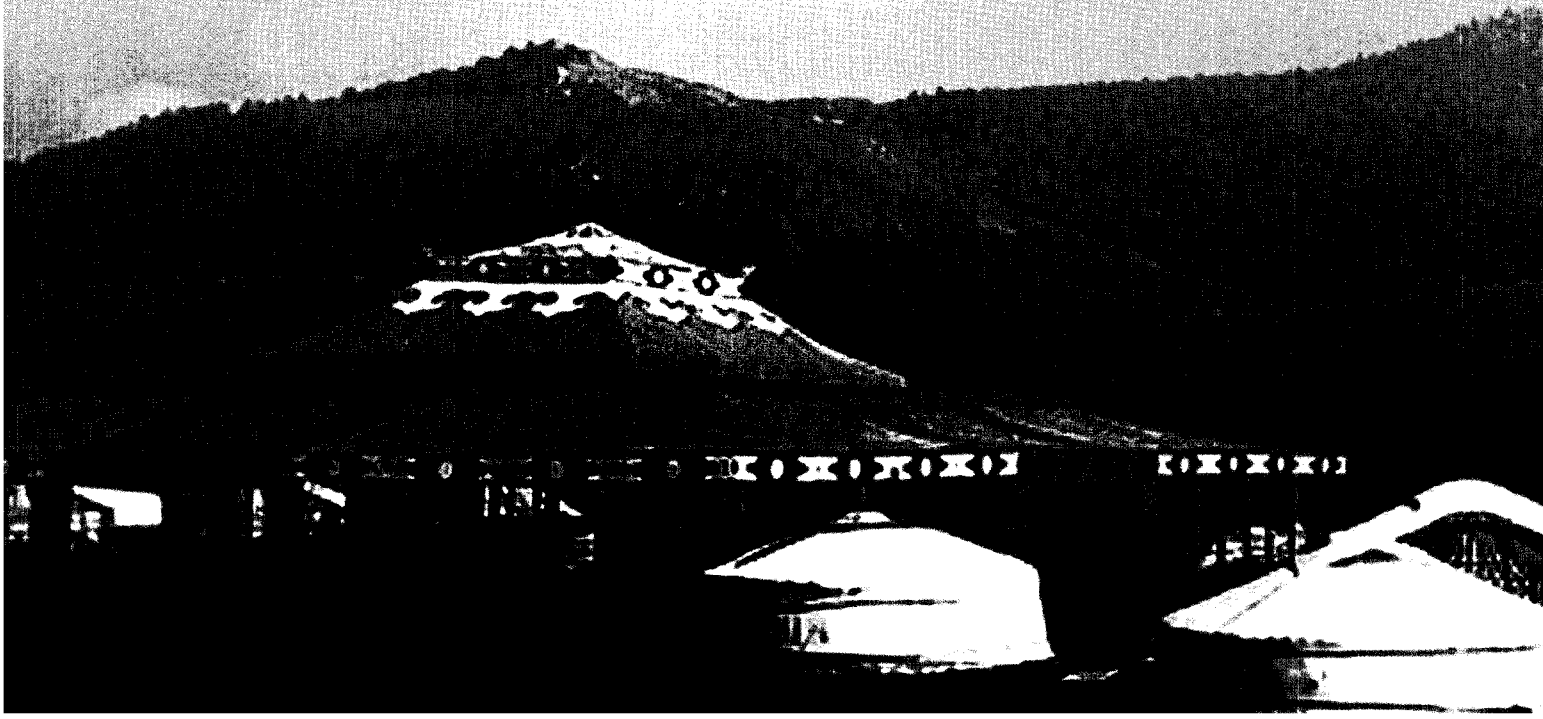
흡수굴 아이막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북쪽으로 670km 떨어진 곳으로, 울란바토르에서 꼬박 이틀을 달려야 하는 먼 곳이다. 길다면 긴 여정에 마음의 준비라도 시키듯, 첫날인 9월 25일 저녁 설레는 맘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몽골 현지사정으로 7시간이나 비행기가 연착되어 결국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야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몽골 국립보건국 소드놈필(sodnompil) 원장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경유지인 에르데넛을 향해 하루를, 그리고 사업지역인 흡수굴을 향해 다시 하루를 달려갔다.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3일에 걸쳐 하늘을 날고 도로를 달린 거리가 얼마였던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펼쳐진 드넓은 초원, 거리의 신(神)과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끊임 없이 스쳐 지나갔다. 도로에 신호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적지 않은 도로가 비포장이었기에, 머리와 어깨가 무겁고 엉덩이도 아파왔지

몽골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에 대해 ①

행복하고 가슴 먹먹했던 이흐올학교 학생 건강검진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몽골 학생건강증진 지원사업은 몽골 보건부(MOH)의 국립보건국(DOH)과의 협약 아래,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 흡수굴 아이막(우리나라의 도(道)) 이흐올학교 학생의 건강검진, 생활환경 및 보건행태 조사, 건강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전년도 사업 지역이었던 에르데넛의 자원 결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남서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9명의 사업단이 9월 25일부터 9박 10일간의 여정으로 떠났다. *김정숙 고객지원과장(검진관리본부)



만, 하늘과 맞닿은 끝없는 길과 파란하늘의 몽게구름은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검진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줄 과자, 노트 등을 준비하기 위해 일행을 태운 차가 잠시 멈춰 섰다. 상점들은 화려하지도, 많은 양의 식료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곳저곳 몇 군데를 둘러서야 필요한 만큼의 물품을 살 수 있었다. 무엇이든 풍족하고 넘쳐나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다시 출발한 지 한참 후 최종 목적지에 차가 멈추어 섰을 때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가슴 먹먹했던 학생 건강검진 착수식

9월 28일, 화려함을 한껏 뽐낸 붉은 태양의 자태가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하는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 몸을 움츠리며 검진 착수식 행사를 위해 검진 대상 학교인 이호올학교로 향했다. 학교에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울리고 있었고, 병풍을 세워 놓은 듯 노란 단풍잎이 가득 달린 나무들을 배경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형을 그리며 가득 차 있었다. 우리를 환영하는 열렬한 박수와 함께…….

이번 검진이 몽골 건강증진에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이호올학교 학장과 몽골 국립 보건국 소드놈필(sodnompil)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남서중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푸른 진주로 유명하고 세계에서 제일 맑은 곳으로 알려진 흡수굴 아이막 학생들의 건강증진, 보건교육, 의료장비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국땅에서의 굳은 다짐의 순간이었던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하다.

행복과 안타까운 마음이 반복되었던 건강검진

착수식을 마친 후 검진장소인 근처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은 벌써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또한 분주했다. 검진 순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화살표며, 검진에 필요한 물품, 검진 순서에 따른 배치 등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 7년째 실시된 사업만큼 노하우가 생긴 듯하다.

일행은 각자 맡은 곳에서 검진을 수행했고, 특히 울산자부 내과 전문의 심재삼 원장은 학생들을 다치지 않게 직접 안에서 베드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진찰하는 열정을 보여 그곳 학교 선생님들을 감동시켰고,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 또한 현기봉 서울서부지부본부장은 검진 현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무엇이 필요한지,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살펴주었다. 검진은 매우 순조롭고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미리 배운 듯,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며 부끄러워하면 서도 천진하게 인사말을 건넸다. 그 인사만으로도 행복해지곤 했다.

검진은 28일부터 30일까지 꼬박 3일 동안 실시되었다. 총 457명에 대한 검진과 136명에 대한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진찰 결과 2명은 심장에 큰 이상이 있어 당장 치료를 해야 할 정도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



● 다음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